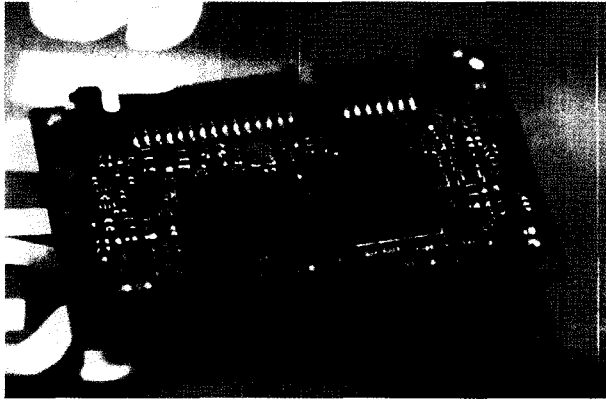


삼성전자, 고성능/저용량 SSD로 노트북PC 시장 본격 공략
 주요 PC 업체에 저용량 SSD (8GB/16GB/32GB) 공급기준
 SSD 대비 절반 사이즈인 'Half Slim' → JEDEC 표준화 추진 중
 기존 프리미엄급부터 저가형 제품까지 다양한 SSD 솔루션 제공



삼성전자가 저가형 노트북PC 시장을 겨냥하여 'Half Slim' 이
 라는 새로운 규격의 고성능·저용량 SATAII SSD 제품 (8, 16,
 32기가바이트) 제품을 9월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 SATA (Serial ATA) : 직렬 데이터 전송 방식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Half slim형 SSD는 기존 2.5인
 치 SSD의 약 1/3, 1.8인치 SSD의 약 1/2 크기의 초경량 제품으
 로 삼성전자가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국제 반도체 표준화 협의기구)
 에 제안하여 세계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높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양산 중인
 128GB 제품에 적용한 고성능 SATAII 컨트롤러 기술을 이번
 제품에도 적용했으며, 특히 32GB SSD의 경우 연속읽기
 90MB/s, 연속쓰기 70MB/s 동작이 가능하다. 이번 저용량
 SSD 솔루션은 16Gb(기가비트) MLC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채용
 하여 8GB SSD는 낸드 단품 4개, 16GB는 2단 적층 칩 4개,
 32GB는 4단 적층 칩 4개로 면적과 무게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32MB(메가바이트) D램을 버퍼(Buffer) 메모리로 활용하여 고속

읽기/쓰기 동작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저용량 SSD 시장의 경우 기존에
 PATA (병렬)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용량 SSD 출시에 따라 저가형 노트북 PC에 SSD 채용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에 울트라모바일 타입 PC(UMPC:
 Ultra Mobile PC)에 16GB/32GB SSD를 탑재한 이래 2007년
 64GB SSD, 2008년 상반기 128GB SSD를 양산하는 등 주요
 PC업체와 디지털 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SSD 채용 확대에 주력
 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고성능·저용량 SSD 출시로 기존 프
 리미엄급 고용량 제품 라인업과 함께 저가형 노트북 PC부터 서
 버용까지 차별화된 SSD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SSD 시장 확대
 를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저가형 노트북 PC용 SSD 시장은 수량기준으로 연간
 57% 성장을 실현 하며 SSD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풀HD TV 겸용 싱크마스터 'T' 모니터 출시

크리스탈 디자인 모니터 라인업 확대, TV 기능 강화친환경
 공법 적용해 '그린(Green) IT' 열풍 주도' 싱크마스터 20주년
 기념행사' 이벤트 마련, 중고모니터 어려운 이웃에 기증



- 기존 크리스탈 디자인 모니터 19/20/22인치 → 24/26인치 라인업 확대
- 1920*1200 해상도, 풀HD TV 겸용으로 모니터로도 TV 프로그래밍 즐겨

- 10,000:1 명암비, 5ms 응답속도, 스테레오 스피커, DNSe 음향기술 적용
- HDMI 1.3, HDMI-CEC 적용해 모니터 리모콘으로 삼성 TV/홈시어터 조정 가능

삼성전자가 모니터 브랜드 '싱크마스터'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선보인 "SyncMaster T" 시리즈 후속 제품으로 TV 기능을 강화해, 초고화질(풀HD) 영상을 모니터로도 감상할 수 있는 24인치, 26인치 풀HD TV 겸용 모니터 '싱크마스터 T240HD/T260HD'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싱크마스터 T240HD/T260HD'는 기존에 출시된 '싱크마스터 T' 시리즈의 영롱하고 투명한 크리스탈 느낌의 신소재 크리스탈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TV 기능을 강화한 풀HD(초고화질) TV 겸용 제품으로, 향후 이러한 풀HD TV 겸용모니터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싱크마스터 (SyncMaster) T' 시리즈를 19인치부터 26인치에 이르는 라인업을 완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게 되었다.

두 제품은 1920x1200 해상도에 10,000:1 동영상 명암비, 5ms의 응답속도와 빌트인 DTV 튜너를 내장해 모니터로도 TV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VI, D-sub, 2 HDMI, 콤포넌트, SPDIF(광단자), 헤드폰 단자 등 TV와 맞먹는 수준의 입출력 단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HDMI 입력시 just scan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의 왜곡 없이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3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독자적 음향 기술인 DNSe(Digital Natural Sound engine)를 적용해 화질 뿐만 아니라 음질까지 최고 수준을 추구했다.

PIP(Picture in Picture)/PBP(Picture By Picture) 적용과 HDMI 1.3 채용에 따른 HDMI-CEC 기능을 통해 모니터 리모콘 하나만으로 삼성 TV와 홈시어터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24인치 이상 중대형 동급 제품 대비 소비전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절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외관 소재에 있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100% 재활용

(Recycle)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 2008년 화두로 떠오른 'Green IT' 열풍을 타고 더욱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초고화질(풀HD)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하면서 모니터와 HD TV가 결합되어 공간 활용성, 경제성 측면에서 가치가 극대화 되는 24"급 이상 대형 다용도 모니터로의 수요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싱크마스터 T240HD/T260HD와 같은 해당 시장 선도형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를 통해 모니터 1위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박용진 상무는 "싱크마스터 T240HD/T260HD 출시를 통해 싱크마스터 브랜드 20주년 기념작인 SyncMaster T 시리즈가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며 "싱크마스터 T 시리즈는 모니터에도 매스티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최고의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글로벌 1위로서 삼성 모니터 위상을 완전히 굳건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240HD의 가격은 59만 9천원, T260HD의 가격은 72만 9천원

한편 삼성전자는 싱크마스터 20주년과 싱크마스터 T 시리즈 풀라인업 완성을 기념해 9월 21일까지 '싱크마스터 탄생 20주년 Special 프로모즈- 아름다운 나눔, 특별한 혜택'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한 혜택으로 T260HD, T220HD 및 T220G를 특별 행사가로 제공한다.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 모니터 기부의를 밝히면 삼성전자가 무료로 수거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LG전자, 세계최저수준 절전LCD모니터 유럽출시

LG전자가 세계 최고수준의 절전기능을 갖춘 친환경 LCD 모니터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 이 LCD 모니터 (모델명 : W52TE, 19인치/22인치)는 일반모드에서 동급기존 모니터 대비 최대50%까지 소비전력을 줄이는 획기적인 절전 제품이다.

9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가에 출시될 이 제품은

IFA 2008에서 친환경 저전력 제품으로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저수준의 전력소비제품이면서도 스마트한 기능과 스타일리시 디자인 및 고급 사양을 갖춘 제품이다. 2008 IF Design Award를 수상했고 250칸델라(cd) 밝기, 10000대 1 명암비, 2ms의 초고속 응답속도를 구현한다. 또한, 펀키(Fun Key)를 사용하면 화면을 일반화면(4:3)과 와이드 화면(16:10)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영화와 같은 와이드 영상을 즐길 때와 게임과 같은 4:3 포맷의 콘텐츠를 즐길 때 화면왜곡이 없다. 화면크기를 쉽게 조정하는 이지 줌잉(ez Zooming), 4가지 사진 모드로 전환가능한 포토 이펙트(Photo Effect), 신나는 버튼 효과음 기능 등을 적용, 모니터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IFA 주최측은 IFA기간 동안 '2008년 IFA 7대 트렌드'를 제시했으며 가전제품에서 「친환경 절전」분야를 향후 유럽시장의 대세로 분석한 바 있다. 이 LCD모니터는 기존대비 최대 70%까지 전력소비를 줄여주는 '아이큐 그린' 기능이 적용된 스칼렛 LCD TV와 함께 대표 친환경 절전 제품으로 IFA기간 중에 소개되었다. 아이큐 그린 기능은 주변환경을 4,100여 단계로 자동 감지하여 밝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시청자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력소비를 최대 65%까지 줄여주는 기능이다.

LG전자, IFA 2008서 블루투스TV 등 첨단제품 선보여

LG전자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8(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 LG전자는 '스마트 테크놀로지, 스마트 리빙(Smart technology, smarter

living)'이란 주제로 3,700m²(평방미터-약1,119평) 규모의 부스에 LCD TV, PDP TV, 블루레이, 홈시어터, 아트가전 등 첨단 라인업을 선보인다. LG전자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편리함을 더한 LCD PDP TV를 비롯해 잔상 없이 또렷한 화질을 즐길 수 있는 100Hz(헤르쯔) 풀HD LCD TV 라인업을 전시한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방송데이터 압축 표준로 떠오르고 있는 MPEG-4 기술을 채용한 TV를 선보인다. 유럽의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최고 70%까지 전력소비를 줄인 스칼렛 LCD TV(LG6000)와 동급대비 50%이상 절전 효과가 있는 LCD 모니터도 선보인다. 또, 차세대 DVD 시장 공략을 위한 블루레이 플레이어(BD-300)를 비롯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스타일리시 DVD 플레이어, 인텔 아톰 프로세스를 탑재한 10인치 넷북을 공개한다. 올해 처음으로 IFA에 참가하는 생활가전 부문은 아트 가전 시리즈를 비롯해 스팀 세탁기, 4도어 냉장고, 빌트인 가전 등 신제품을 대거 출품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실구매가 가능한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유럽 각지의 메이저 거래선 및 바이어들과 즉석 상담을 실시한다.



IFA전시회는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의 영상/음향가전 종합전시회로 지난해 18만 평방미터(180,000m²)의 면적에 32개국 약 1,212개 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IFA는 관람객의 절반 가량이 바이어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중심의 전시회로 지난해 약 27.5억 유로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LG전자 DD 사업본부 강신의 본부장은 "유럽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으로 하반기 유럽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IFA 2008 주요 출품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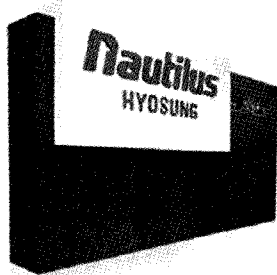
• 블루투스 탑재 풀 HD TV 라인업

LG전자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풀HD LCD(52/47/42/37/32인치)와 PDP(60/50인치) TV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제공되는 무선 헤드셋을 통해 TV의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사진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TV로 전송할 수 있다.

• 유럽식 디지털 방송데이터 압축 표준 MPEG-4 기술을 채용한 평판 TV

LG전자는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방송데이터 압축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MPEG-4 기술을 채용한 TV를 대거 선보인다. 이미 프랑스에서 공식 HD방송규격으로 채택한 MPEG-4 기술은 높은 압축률로 인터랙티브 쌍방향 TV방송의 고해상(HD)영상신호 압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MPEG-4 기술을 적용한 LCD TV를 프랑스에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 평판TV 5종을 추가로 유럽 주요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에 내장된 'MPEG-4 AVC 디지털 방송 디코더'는 PAL, DVB-T, MPEG-1, MPEG-2 방식도 수신이 가능하다.

노틸러스효성 (미국 ATM 제조사 트라이톤 인수)



세계 4위 군허.. 글로벌 BIG3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노틸러스효성이 최근 미국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제조회사인 트라이톤 시스템스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위한 지분인수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트라이톤 시스템스는 미국 중장비제조사인 도버 그룹(Dover

Group)의 산업기계 부문 계열사로 북미지역과 영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지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난해 매출 8천만 달러와 판매대수 약 15,000여 대에 달하는 ATM 메이저 업체이다.

류필구 노틸러스효성 사장은 "이번 계약은 노틸러스효성의 해외진출전략과 도버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의지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트라이톤이 북미지역 및 해외시장에 잘 알려진 ATM 브랜드이고 기술력과 R&D역량 또한 뛰어나 향후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인 효성의 조현상 전략본부 전무는 "이번 인수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려 북미지역 및 해외시장에서 사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1등 품질확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ATM 시장 확대 전략에 더욱 집중하여, 세계3대 ATM 제조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직판 영업망을 개척해 온 노틸러스효성은 트라이톤 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기존 영업기반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 시장인 고기능 ATM기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노틸러스효성은 국내 ATM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3,500억원의 최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98년 이후로는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약 10만대 이상의 ATM기를 수출하였으며, 중국 베이징과 미국 달라스에 판매법인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ATM 토탈아웃소싱 분야에도 진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삼화콘데서(나노파우더 분산 및 코팅공정 원천기술 개발)

삼화콘데서는 20일 초고용량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를 양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무라타, 교세라 등 몇 개 선진 업체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및 제조 공정 기술과 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재료의 원천기술은 유전체를 구성하는 나노크기의 티탄산바륨 주원료와 금속산화물 첨가제의 균일한 분산 및 코팅 기술이다. 유전체층의 박막화, 균일화는 고용량MLCC가 요구하

는 안정된 온도특성을 만족시켜 신뢰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나노급 금속재를 적용한 전극재의 조성 기술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해 MLCC 제조 공정기술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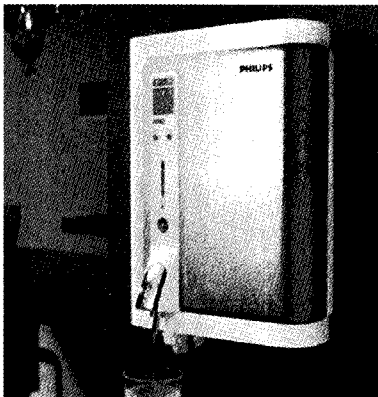


SAMWA 삼화 콘덴서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삼화콘덴서의 윤중락 연구소장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화 및 대용량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MLCC제품군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탑재돼 전압을 낮출 때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 전자제품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핵심 전자부품이다. 최근 휴대전자기기의 다기능, 소형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초고용량 MLCC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주)필립스전자, 태양 살균 원리를 이용한 UV 정수기 출시



- 강력한 자외선(UV) 램프로 미네랄은 살리고 유해물은 제거
- 고유가 시대에 알맞은 고효율의 똑똑한 정수 시스템

- 주방 공간의 효율성을 살린 세련된 벽걸이형 디자인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 선도기업 (주)필립스전자(대표이사 사장 : 김태영, www.philips.co.kr)는 태양 살균의 원리를 이용한 신개념 UV 정수기 ‘필립스 정수기’를 출시한다.

필립스 정수기는 기존 필터 방식 정수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자외선(UV) 램프를 탑재하여 유해한 미생물과 병원균은 제거하고, 동시에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살린 ‘무균 상태의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필립스 정수기는 자외선(UV)램프의 강력한 살균력으로 국내 최초로 국제수질협회(WQA) A등급 인증을 획득하고, 네덜란드 수질연구소(KIWA) 살균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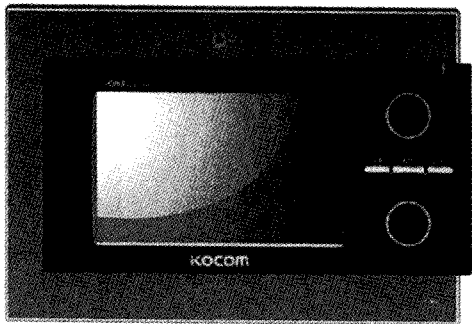
고유가 시대에 알맞은 고효율 정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20L의 물을 정수했다고 가정할 때 월간 소비 전력이 2kwh 정도에 불과하며(또는 월 160시간 사용 시 월간 소비전력이 4kwh), 원수 손실량도 전혀 없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또한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전 대기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필립스 정수기는 소비자의 ‘위생’을 고려하여 스스로 필터 상태를 감지하여 교체 시기를 알려주며, 필터 교체 방식이 간편해 별도의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직접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이 밖에도 필터 교체 시기가 지나면 정수를 중단하는 자동 잠금 기능,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정수기 내부의 모든 배수관과 UV관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자가 세척 기능이 있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

또한, 벽걸이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방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필립스전자 소비자라이프스타일 부문의 김영진 부사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물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혁신적인 정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립스의 첨단 기술이 총 집약된 필립스 정수기는 정수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주)코콤 홈네트워크 2008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지난 1976년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현재까지 관련 시장에서 그 노하우를 자랑하는 코콤은 설립 당시 디지털 영상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중국을 비롯한 미주·유럽·남미 등의 해외시장에 수출해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했다.

코콤은 초기 인터폰을 시작으로 비디오 도어폰, 국내 최초 디지털 방식의 CCTV, 디지털 및 PC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명성이 높다. 지난 98년에는 국내에 홈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시작되기도 전에 '홈오메이션 사이버 아파트'를 두산 위브 아파트를 통해 선보임으로써 업계를 놀라게 하였고, 정부의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코콤의 홈네트워크 기술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코콤의 홈오메이션은 홈오토 단말기는 물론, 다양한 확장 기능을 갖춘 로비폰·주방T V폰·서브폰·욕실폰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하드웨어 기반 의사큐리티 패널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코콤의 홈오메이션은 영상솔루션과 각종 센서(화재·가스·방범) 등과 연계하여 Home Security 솔루션 등 고급화·지능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콤의 솔루션은 비상시 전화선을 이용한 자동통보 및 경비실 통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집 안에서 직접 출입통제가 가능하고 아파트 전체를 단일 통화권으로 묶는 무인경비시스템, 직다이얼 방식의 무인경비시스템, 컬러 홈오메이션 등 편리성과 안정성, 쾌적성 부문에서 그 우수성을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인터엠



본사 조순구 대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수여
중소기업인의 잔치, '2008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의 축제인 '제2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8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및 65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중소기업인 등 230여명에 대하여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는 매년 5월 셋째주에 열리는 중소기업주간행사 중 첫날에 열리는 가장 큰 행사로 해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의욕을 고취해 왔다. 이날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모범중소기업인, 육성공로자, 모범근로자 및 우수지원단체의 4개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하였는데, 인터엠(주) 조순구 대표 등 12명이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동헌산업(주) 강진용 대표 등 6명이 산업포장을 그밖에 25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모범중소기업인으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인터엠(주) 조순구 대표는 평생을 음향기기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인천공항, KTX 등에 최첨단 방송시설을 국산화하고, 음향기기 메인컨트롤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국가경제 및 음향기기 기술 우수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켜 국내 음향·방송기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을 통

해 중국 저가제품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공이 컸다. (주)인터엠은 1995년 12월27일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최고의 산업용 음향, 방송기기 전문업체로 제조에서 설계, 시공, 설치까지 일괄 제공하고 있다. 조 대표는 매출액의 8% 이상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투자해 세계 최초로 15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윈도우 XP기반 메인 컨트롤러 시스템을 개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수입검사용 간편 지그(jig)의 제작과 PCB설계 가이드북 작성, 자재 배치개선, ERP 시스템 도입 등으로 기술 및 품질수준을 끌어올렸다. 이같은 조대표의 노력으로 (주)인터엠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영종도) 방송·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했고 경부고속철도 음향기기 공급업체로도 선정됐다. 이는 외국업체의 전유물이었던 대규모 방송·음향 관련 국책사업을 국내업체가 대체, 국산화를 이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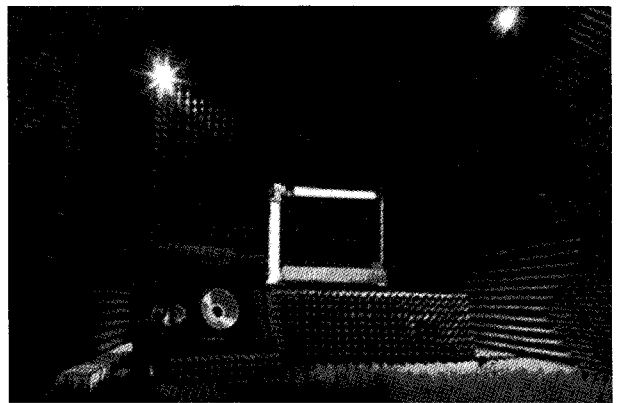
조 대표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에 이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경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라인을 기존의 컨베이어 라인에서 셀 라인으로 교체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자체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해 제품에 대한 품질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조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에 2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해 2002년에 중국지사, 2007년에 홍콩지사를 추가로 설립했다. 특히, 러시아 지역에서는 현지시장에 맞는 새로운 모델과 전략적 모델을 출시해 수출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조 대표의 이러한 노력으로 (주)인터엠은 작년에 매출 615억원, 수출 189억원을 달성했고 경상이익도 39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이 44%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췄다. 신 노사문화 창조에도 앞장서고 있는 조 대표는 노사협력과 안정적 고용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임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해 노동조합 설립 없이 12년간 무분규 기록을 달성했다. 또 경기도 소재 '요셉의 집' 외 12개 보호단체에

매년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주)인터엠 조순구 대표는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투명하고 바른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끊임없는 연구·기술개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음향·영상·통신 분야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이스안테나 Compact Range Chamber 완공



(주)에이스안테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통신용 'Compact Range' Chamber 공사를 완공하였다. Compact Range Chamber란 야외에서 실시하는 기지국 안테나의 성능 실험을 실내에서 같은 여건 하에 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에이스그룹 新사옥 중 연구 실험동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주)에이스안테나는 금번 Compact Range Chamber 완공으로 업계 최초로 800Mhz부터 100GHz까지의 주파수 측정을 커버할 수 있으며 한정적인 공간에서 안테나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구축 함으로서 국,내외 거래 업체에 정확한 성능 시험결과를 제공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mpact Range Chamber 제원

측정 주파수 범위 : 0.8GHz ~ 100GHz

크기 : 11 m(H) x 12.5 m(W) x 22.0 m(L)

Quiet Zone : 직경 3m x 길이 3m (실린더형)

Reflector : 4m X 4m (Serration포함시 약 8m X 8m)

포지셔너 구성 : Roll / Model Tower / Down-range sl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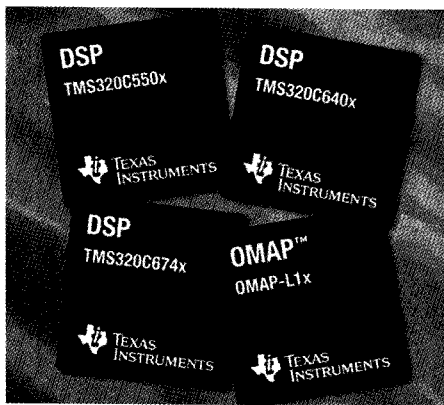
/ Azimuth / Elevation / Azimuth /
Cross-range slide(4m) 구성

Feed : Set of CR corrugated half-octave feeds

RF System : Agilent PNA (E8362B) 및 몇몇의 추가적인
Orbit/FR 에 제공되는RF units.

측정 프로그램 : MIDAS 5.0 (ORBIT/FR)

TI 코리아



(대표이사 손영석, www.tikorea.co.kr) - 휴대형 제품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TI는 저전력 프로세서 로드맵을 소개, 4개 부문에서 15종 이상의 신규 디바이스를 발표했다. TI의 로드맵은 업계 최저 전력의 부동소수점 DS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정밀한 부동소수점 프로세서 성능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쉽게 휴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들은 TI의 새로운 ARM9™ 및 ARM9-plus-DS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휴대 기능과 풍부한 GUI를 갖춘 제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I의 수석 펠로우 진 프란츠(Gene Frantz)는 "수년간 대부분의 고객들이 단순히 성능 향상을 위해 TI에 접근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고객들의 첫 질문은 '주어진 전력 한도 내에서 TI가 얼마나 더 많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TI는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기술, 주

변기기의 통합, 병렬 프로세싱, 아날로그, 커넥티비티, 전원 관리 소프트웨어 및 툴을 통해 아키텍처 내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사용의 편리성을 개선하며 뛰어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수명 연장

낮은 전력 소모가 장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첫째, USB 포트처럼 낮은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는 제품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하루 종일 배터리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제품이다. 셋째,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2주 이상 기능이 지속되는 제품이다. TI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4개 부문에 걸쳐 15종 이상의 신규 디바이스를 발표해 각 카테고리에 임베디드 프로세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저전력, 고정밀 구현 (TMS320C674x DSP) : 개발자는 부동소수점 DSP의 정밀성, 폭넓은 동적 범위 및 빠른 시장출시기간을 필요로 하는 오디오, 의료, 산업용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형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부동소수점 DSP에 비해 3배나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C674x 디바이스는 24~32비트의 정확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업계 최저 전력의 부동소수점 DSP이다. 2008년 4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며, 전력 소모는 딥슬립(deep-sleep) 모드에서 6mW, 활성 모드에서 420mW이다.

½의 전력 소모로 고성능 구현 (TMS320C640xDSP): C640xDSP는 TI의 TMS320C6000™ DSP 플랫폼의 기존 고성능 디바이스에 비해 전력 소모가 ½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자들은 SDR(software defined radio), 산업용 기기 및 이머징 마켓 등 프로세싱 강화 애플리케이션에 휴대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TI의 고성능 C64+™ 코어를 기반으로 한 이 디바이스는 딥슬립 모드에서 전력 소모가 6mW로 매우 낮으며 활성모드에서는 총 전력 소모가 415mW다. 다양한 OMAP-L1x와 C674x 제품과 핀-포-핀(pin-for-pin)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 C640x 프로세서는 새로운 수준의 확장성을 제공하며, 2009년 초에 공급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성능 및 저전력 구현 (OMAP-L1x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OMAP-L1x 제품군에는 ARM9 및 ARM9+DSP 아키텍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자가 풍부한 기능의 GUI와 네트워킹 및 터치 스크린 기능을 휴대형 디자인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디바이스는 네트워킹을 위해 다양한 주변 장치를 제공하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유연성을 위해 리눅스 또는 DSP/BIOS™ 리얼타임 커널로 가동된다. 이 제품군은 C674x 및 C640x 계열의 다양한 제품과 핀-포-핀 호환이 가능하다. 답슬립 모드에서 6mW의 전력소모, 활성모드에서는 435mW의 총 전력을 소모한다. 2009년 초에 공급될 예정이다.

배터리 수명 최대화 (TMS320C550x DSP) : 긴 배터리 수명을 요구하는 개발자를 위해 TI는 새롭게 선보인 C550x 디바이스와 함께 TMS320C5000™ DSP 플랫폼으로 저전력 부분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DSP에는 대형 온칩 메모리와 보다 빠른 분석을 위해 최적화된 FFT 코프로세서가 포함되며, 코어 전력 소모 수준을 답슬립 모드에서 6.8μW로 낮추고 활성모드에서는 총 전력 소모를 46mW로 낮춰준다. 이는 기존 C5000 디바이스의 1/2 수준이다. 멀티 파라미터 의료기기, 노이즈 감소 헤드폰, 휴대용 오디오/음악 녹음기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C550x DSP의 성능과 주변기기 체계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2009년 1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십 년의 저전력 경험으로 휴대 성능 요구의 해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TI의 프로세서들은 저전력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력한 TI의 결실이다. TI는 업계 최저전력 MCU인 MSP430, 최저 전력의 16채널 고정밀 ADC ADS7953, 최저전력의 제로 크로스오버 연산 증폭기 OPA369, 에너지 효율적인 전력 설계를 위한 전원 관리 솔루션 포트폴리오 등의 혁신을 통해 이를 증명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TI는 전력 최적화 및 고성능을 위해 시스템 수준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고객들에게 업계 선도적인 시그널 체인, 전원 관리,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TI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세계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전력에 대한 관심을 단 순히 휴대기능을 추가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TI는

본질적으로 제품의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들이 보다 환경친화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LS전선, 박의돈 박사 '아태 FTTH 위원회' 부회장 선출

■ FTTH 사업 역량의 국제적 위상 제고 기대

LS전선(대표 구자열)은 통신사업본부 NI(Network Integration)팀장 박의돈 박사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FTTH(Fiber to the Home)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2일 밝혔다.



박의돈 박사는 LS전선에 입사 후 20여년간 줄곧 광케이블 및 광통신장비 등 정보통신분야의 신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FTTH 위원회의 설립 멤버 및 상임위원 등 국제 무대에서도 신기술과 관련된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국제 FTTH 협의회'는 FTTH 시장 촉진과 신기술 발표, 기술 표준화, 각국의 규제 정책 협의 및 FTTH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 FTTH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4년 설립돼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3개 지역협의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FTTH 협의회는 알카텔 루슨트(Alcatel-Lucent)와 에릭슨(Ericsson),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스(Nokia Siemens Networks) 등 광통신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통신사업자, 정부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신흥 아태지역의 FTTH 분야 사업 개발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LS전선은 쿠웨이트 정보통신부가 발주한 FTTH망을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등 FTTH사업을 통신부문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박의돈 박사의 부회장 선출로 FTTH사업 역량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